

문화시장 개방의 정치경제학

문화제국주의 논쟁과 비판적 수용

임동욱*

(광주대학교 신문방송광고학부 교수)

지금 현재, 한국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연기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방송, 영화, 광고, 통신 등 문화시장에도 적용된다. 이 글은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문화제국주의는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문화의 영역에도 중심과 주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문화제국주의의 중심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장들을 살펴보면, 문화에서 보호는 자기 패배라는 주장에서부터, 문화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제국주의가 수용자의 수용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인은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내적, 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용국가의 내적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문화제국주의, 시장 개방, 문화 세계화, 문화 다양성, 문화 동질화

* dongukim@gwangju.ac.kr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세계화로 표현되는 하나의 시장을 향한 자본의 흐름은 국경과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은 브래튼우드 협정에 따른 GATT와 IMF의 출현, 그리고 이후의 WTO, GATS, 지역무역협정의 하나인 FTA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인 협정과 기구의 등장은 장벽 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는 전체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범세계적 규모의 재구조화는 그것의 범위와 성격 면에서 이전 시기의 재구조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태동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려는 자본의 몸부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른바 문화의 세계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정보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에선 문화의 세계화를 문화제국주의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선 문화의 세계화를 부정적으로만이 아닌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화산업과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의 핵심은 전 지구적인 문화의 교류를 문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교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한 나라에 의한 문화 침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상호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문화제국주의 주장에 따르면 대표적 문화 산업인 미디어가 파생시킨 문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파급되어 전 세계적 문화의 동질화를 이루고 미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미국식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문화를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된다. 따라서 문화의 세계화 내지는 동질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이나 초국적 매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보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문화의 세계화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세계화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전 세계, 전 인류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이 거대 자본을 가진 초국적 기업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되는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미국은 바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 산업을 탄생시켰고 세계적 소비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문화의 세계화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맥도널드, 코카콜라, 나이키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모스크바의 광장에서도 햄버거는 보편화되었고, 북경에서도 코카콜라는 보편화된 음료이다. 따라서 청바지를 입고,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고, 코카콜라를 먹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화되었는가? 또한 이들은 문화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인가? 이들이 맥도널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마시고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은 미국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소비자의 필요와 선택에 의한 것이다. 영토 확장과 이에 따른 소비 시장의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식민지 국민들은 강제적 소비가 수반되었지만, 이제 폭력과 무력을 수반한 고전적 제국주의가 거의 막을 내린 시대에서의 소비는 자발적 소비 내지는 적어도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소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비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의 선택은 물질적, 정신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의 미덕을 전파하는 미디어의 파상적 공세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각종 광고 등 문화 산업이 매일 매일 제공하는 메시지에 접촉하고 있다. 크렘린 광장과 천안문 광장의 큰 옥외 광고판은 매일 매일 이들에게 소비의 유혹을 손짓하고 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자연스럽게 청바지를 입고,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점진적이고 끈질긴 미디어 메시지의 구애 앞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청바지를 입고 햄버거를 먹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는 존재하는가? 문화제국주의는 문화 동질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인가? 아니면 문화의 세계화 내지 문화 복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아니면 긍정적인 현상인

가? 이러한 현상은 강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시론적인 답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시장 개방에 따른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제국주의론, 세계를 중심 국가와 종속 국가로 파악하는 종속론, 세계화는 인류의 발전과 문명을 살찌운다는 세계화론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다음 문화시장 개방과 관련한 이론인 문화화신론, 문화제국주의론, 최근의 제국주의 논의와 세계질서로 자리 잡은 GATT부터 FTA까지의 국제 협약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문화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논쟁, 즉 문화제국주의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에서부터, 수정된 문화제국주의의 주장, 문화 복합론 등 다양한 문화 유입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시장 개방의 정치경제학

1) 제국주의론

넓은 의미의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타 지역에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제국주의는 원료확보나 상품수출, 잉여자본의 해외투자를 위한 후진지역으로의 진출과 이권획득이 가능한 해외 식민지획득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자의 개념에 의거해 본다면 서양의 제국주의의 역사는 근대 초 유럽의 지리적 팽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서양의 제국주의는 19세기 후반, 보다 정확히는 18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배경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의 근대국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그 시작점으로 본다.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뿐 아니라 교통·통신 영역의 비약적 발전, 자본의 축적, 정치적 성숙을 겪게 된 유럽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달을 경험하였다. 이는 잉여자본이 축적되는 동시에 생산 및 자본의 집중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자유경쟁은 쇠퇴하고 독점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주의에 길을 내주었다.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자본주의의 발달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독점체제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독점금융자본은 필연적으로 자본을 수출하여 세계시장의 관계를 바꾸게 된 것이다.

즉, 두 차원의 제국주의가 등장한다. 하나는 독점 자본의 경쟁 및 그 정치적 표현 형태인 자본주의 거대 열강의 대립이다. 열국체제의 수평적 차원이다. 부하린이 설명하듯이, 자본의 국제화와 자본의 국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적 공간의 확대를 위한 폭력적 방법이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거대 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 분할, 즉 식민화 정책이다. 열국체제의 수직적 차원이다. 자본주의의 지리적 팽창은 독점자본이 값싼 천연자원 및 노동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구갑우, 2001).

레닌은 제국주의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진 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진단하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발견할 수 없게 된 잉여자본이 제국주의의 중심 동인이며, 독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장통제와 천연자원의 공급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레닌은 이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를 ‘독점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라고 언급하였다(레닌, 1988). 즉, 생산과 자본의 집적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독점으로서의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파악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을 재촉한 경쟁은 독점자본주의 형태로 전화되었고,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더 높은 경쟁의 단계인 제국주의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일국의 시장을 장악한 독점자본이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시장 개방 압력, 국제적 기구들의 통제, 군사 동맹을 통하여 자국 내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

2) 종속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한 근대화 정책에 따라 국가의 발전 전략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성장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일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와 군부독재의 확산 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제3세계의 상당수 국가들 사이에서는 종래의 발전 방식인 미국 주도의 근대화 이론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지배와 종속 또는 중심 국가와 주변 국가라는 차별화된 생산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종속론이 태동하였다.

종속이론의 선두 주자인 프랭크는 자본주의 발전과 팽창은 발전과 저발전을 양산하였다고 하였다. 주변국가의 저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의 내적 모순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프랭크는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능했으며, 제3세계는 서구의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저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발전과 저개발은 모두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 모순의 결과이다. 세계지본주의체제로 통합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개발의 심화가 이루어진다(임현진, 1987; Barone, 1985).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 내의 중심국가로부터 주변부로의 경제적 침투에 의해 양 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중심부의 증대하는 우위는 3원적인 세계지배체제를 낳았다. 핵심적인 중심부(core) 국가들은 상업적 농업과 공업생산에 몰두하였고 최하층의 주변부(periphery) 국가들은 중심부에서 소비되는 몇몇 단일 품목의 원자재만을 생산하게 되었다. 양 집단 사이에는 생산 체계에 있어서 주변부보다는 더 분화되었지만 중심부보다는 덜 분화된 반주변부(semi-periphery)가 놓여있게 되었다(임현진, 1987: 38; Brewer, 1980: 165).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란 갖가지 생산 활동을 통합하는 장이고 시·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존재인 것이다. 거기에서는 끝없는 자본축적이야말로 중요한 경제 활동 전부를 지배하는 목표 내지 법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처음부터 이 법칙에 따라 활동해 온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행동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Wallerstein, 1986). 월러스타인의 세계 체제론은 뒤에서 논의될 문화제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쉐러 등의 학자들이 세계체제론에 입각한 문화제국주의론을 전개한다.

3) 신자유주의 시장론 또는 세계시장론

시장 개방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의 변형 형태인 신자유주의 시장론 또는 세계화 시장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론에 의하면 일반 상품은 공급과 수요의 자유로운 매개에 의하여 가장 잘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상품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도 국가 간의 장벽이나 국경을 없애고 자유로운 교역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 전략이나 지구촌의 개념이 세계 시장(global market)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세계 시장의 형태에서는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범세계적 유통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법규들을 제거하여 국가 간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론에 근거하여 수립된 세계 시장론은 GATT 체제를 대폭 보강하여 새롭게 탄생된 WTO에 잘 반영되고 있다. 1986년 Punta del Este에서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예전의 무역 협상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일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서 국경의 경계가 대폭 무너지고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고 불렸음에도 전통적 무역(국경을 통한 상품의 교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경제를 초국적 체계(transnational system)로 재편한 것이다.

즉 WTO 체제는 초국적 기업들(세계를 세계 시장으로 엮어 주고 중심 국가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자본 축적을 보장해 주는 도구)이 제3세계 국가의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Raghavan, 1993).

미국과 서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GATT체제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지리적 국경이 존재함에도 무역의 영역에서는 국경의 개념을 없애 버리고 세계 시장을 구축하여 자유 무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보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이제 단일 국가의 개념은 무너지고 있다. 인터넷 혁명 또는 사이버 문화는 국경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에서도 이미 국경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철학과 문화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케이포(1999)는 이를 인터넷의 ‘제퍼슨 자유주의(Jeffersonian liberalism)’라고 표현한다. 케이포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은 종종 원시적이고 개척자적인 조건에 놓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경우어나 엘리트주의적이지 않고 평등주의적인, 그리고 위계적이지 않고 탈 집중화된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대중 관객들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봉사하며,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극히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다. 제퍼슨 자유주의는 엘리트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위계적 질서에서 탈 집중화된 구조로 변화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마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중심의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케이포, 1999).

제퍼슨 자유주의의 개념이 무역과 상품의 논리에 접목되면 자유무역주의와 세계 시장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제퍼슨 자유주의라는 개인적 자유주의가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를 자유롭게 달리면서 국경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확보는 미국식의 자유주의 개념과 세계화의 논리 연장선에 있다. 인터넷과 위성통신은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지구적 생산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보통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세계적 시장이 형성된다. 허버트 설러가 진단한 바와 같이 지구정보고속도로 개념은 시기적절하게도 기업의 지구적 질서를 위한 전제조건이 대부분이 충족되었을 때 출범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상 처음으로 비교적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조직되고 지배되는 지구경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 지구적 경제기구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타 지역을 제외한다 해도, 미국에만 수백만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지구적 체계에서 경제적 집중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기업 질서는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주된 동인이다. 사적 부문의 경제적 결정이 자원의 지구적, 일국적 할당, 투자의 규모와 성격, 통화가치, 생산의 입지와 양식을 점점 지배하고 있고, 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거대한 사적 경제복합체에 의해 조용히 전유되고 있다(설러, 1999).

결과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 문화 영역에서 세계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 체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초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국경 없는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키게 된다.

4) 최근의 제국주의 논의와 세계 질서의 정치경제학

최근의 제국주의 논의들은 세계화와 함께 자본의 축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위상 및 역할에 맞추어져 있다. 세계화는 지구적 자본운동의 전면화에서 출발하는데, 자본의 운동이 나라와 국경을 넘어 생산 단위의 국제적인 연계, 생산기지의 현지화 등 세계경제의 세계화 내지는 지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주의와 다자간 협상 또는 쌍무협정에 기초하여 관세 및 상품 교역뿐만이 아니라 자본투자 및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새로운 국제 질서(GATT에서 WTO, FTA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남구현, 2004: 156~158).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는 몇몇 국가의 주도로 혹은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졌던 국제화와는 달리 전 세계적인 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범지구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의 구축으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국경과 장벽이 없어지고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화는 힘 있는 국가 간의 대연합, 예를 들어 EU의 탄생이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는 NAFTA나 FTA 등 지역협정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적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늘날의 세계 경제로의 이전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국적 기업은 소유권, 경영, 생산 그리고 판매 활동이 몇몇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팽창하는 과점적 기업의 성격을 지닌다. 조직 면에서 보면 한 나라에 본부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예속 회사 군을 거느린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의 작동 방식은 이와 다르다. 초국적 기업은 국경 없는 경제의 논리에 의존한다. 초국적 기업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본으로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 본부가 자국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준거로 하여 필요하다면 본부 역시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길성, 1996).

초국적 자본은 자본의 축적과 초과 이윤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산 자본의 전 세계적 이동을 통해서 자본 및 생산 활동의 순환을 세계화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자본 활동 자체가 국가의 영향력을 벗어나 이미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영·생산·판매활동을 하는 자본이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등장은 세계경제의 형성과정과 맞물려 있으며, 세계경제는 초국적 자본이 활동하는 주 무대이다. 국제경제의 기본적 주체는 국민국가이지만 세계경제의 기본적 주체는 초국적 자본이다(나종만, 1995). 초국적 기업들은 이제 국내적 기반을 떠나 세계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벌임으로써 자본운동의 순환을 지구촌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국제 활동을 벌이더라도 국내에

서의 거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국내 기반이라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내의 기반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초 기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의 시장도 세계시장의 일환일 뿐이다. 다만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는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미국과 선진 자본 국가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는 목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국경 없는 세계 시장의 구축을 향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상품의 국제적 유통을 위주로 하던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 부문이 추가되어 지적 재산권, 저작권 등의 영역이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 영역에서도 국경 없는 세계 시장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영역은 하드웨어의 유통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 등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 받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래의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3. 문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학

1) 발전이론(근대화론)과 문화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론은 발전 이론 내지 문화확산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은 서구의 문화 및 가치 체계가 제3세계의 발전과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제3세계의 근대화와 발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제3세계 국가들은 서구 중심의 발전전략이 그들 나라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탈식민지 상태를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다니엘 러너, 윌버 슈람, 에버렛 로저스 등이 발전이론을 발전시키고, 발전(근대화)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한다(Lerner, 1958; Schramm, 1964; Rogers 1962, 1969). 러너는 전통-과도기-근대라는 사회의 발전 단계를 제시하며, 근대는 참여사회로 가는 과도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전통 사회는 비참여 사회이며, 따라서 전통 사회의 저발전은 미디어 노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Lerner, 1958).

그러나 발전 이론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발전 이론이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과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종속이론은 서구 중심의 발전론을 비판하며, 서구 중심의 발전 전략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남미 국가와 제3세계에 남겨진 것은 '저발전의 발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제국주의론은 종속론과 제국주의론에 입각하여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불균등과 미국의 지배를 비판한다. 제3세계 국가들이 서구 중심의 발전이론과 근대화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서구 중심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문화 등이 제3세계를 동질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문화제국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활동들도 여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있어서 국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국적 독점기업들의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들의 선봉장이 되어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결과로 인하여 문화와 정보의 영역에서도 불균등 관계 내지는 종속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에 따르면 국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의 준거 틀로서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86)에 의해 주장된 '세계자본주의체제'틀을 따르고 있다. 허버트 설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국가 계획적인 사회들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국내외 국제적인 경제활동들은 월레스타인이 말한 ‘근대 세계 체제’의 명백하고 묵시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있다(Schiller, 1979).

그는 자본주의의 힘은 세계체제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체제의 유지와 자본주의의 안정과 생존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세계 자본체제가 통제를 강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의 수출, 신국제분업, 그리고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문화제국주의도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있는 세계체제 속에서 존속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는 월레스타인의 종속이론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불균등한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세계자본체제 속에서의 중심 국가들과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심’이나 ‘본산(metropolitan)’ 대 ‘주변’, ‘위성’ 등의 대립적인 개념들이 그들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중심 국가란 국제간의 불균등한 교환관계에서 이익을 흡수하거나 착취하는 국가들이고 주변국들이란 중심 국가의 착취에 의해서 만성적인 저개발을 경험하여 온 나라들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관계가 경제영역에서만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국가도 국제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정보 분야에서의 국제관계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 패권에 의해 특징화되어지는 적대적 모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국제간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

1) Hamelink와 Schiller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Hamelink는 그의 저서 *Cultural Autonomy in Global Communication*(1983)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국제간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dissociation)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이

두 번째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활동들은 경제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지식, 언어, 의식 등 인간의 지적인 생산물은 그들의 사회적, 물질적인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명제에 입각하여,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세계적 자본주의 팽창을 지배하는 합법칙성과 일반적인 경향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이 다국적 독점기업들의 시장팽창과정과 이윤극대화 과정의 추적에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허버트 쉐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온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수천 개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러한 기업들 — 그 중 3분의 2는 미국 소유이거나 미국에 근거를 둔 — 은 전 세계에 걸쳐 공장과 설비 시설 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투자, 생산 가격과 노동 가격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자본투자의 이익성과 안정성에 있다”(Schiller, 1986). 이러한 연구들로서는 아망드 마펠라르에 의한 다국적 기업 연구(Mattelart, 1979), 웰스(Wells, 1972)에 의한 남미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소유권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토마스 구백(Guback, 1974)에 의한 미국의 세계 영화계 지배, 노린 제이너스(Janus, 1984)와 프레드 피지스(Feejes, 1980)에 의한 다국적 광고기업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팽창과 이윤추구에 관한 본질과 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 번째로는, 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이데올로기 생산기구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기초 이면서 상품을 생산해내지만 또 한편으로 이데올로기, 가치와 사회의식도 생산해내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자 주창자들은 미디어 조직이란 국내적으로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국제적으로는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구라고 주장을 하며, 문화적인 패권 국가들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생산국가로 규정짓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

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체제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한 국가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적인 조건들과 시장구조가 문화산업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로서 작용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도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상부기관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매스미디어를 특정지역에서의 종속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기구로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가설이 경제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의 가설과 상충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관계와 경제구조, 물질적인 토대를 포함하는 하부구조와 그것에 토대 하여 재생산 역할을 하는 국가기구, 교육기관, 교회 등을 포함하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인 의식들의 표현인 상부구조와의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가설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토대에 기초한 재생산 활동으로서, 또한 역사적인 상황 하에서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재생산 활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기계론적인 결정주의나 환원주의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문화제국주의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데올로기적 역할도 이러한 상호관련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을 서구제국주의의 이윤추구와 이에 따른 시장 팽창, 그리고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복합기구로 인식하는 아망드 마텔라르프(Mattelart, 1979)는 어떻게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지배를 구축하는 것인가, 문화기관들이 어떻게 자본에 종속되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또한 디즈니 만화연구에서 도프만과 마텔라르프(Dorfman and Mattelart, 1975)는 도널드덕이 제국주의의 정교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묘사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디즈니의 세계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치와 생각, 기준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문화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가설과 현상들이다. 즉, 이 이론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와 정보의 불균형한 교환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관계의 물질적인 토대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분석에서 ‘중심 국가’ 대 ‘주변국가’의 대립적인 개념은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이론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현존하는 문화패권과 지배에 대한 원인의 규명, 즉 외부의 착취세력 — 제국주의자들의 활동 —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제국주의로서 문화의 세계화와 다양성으로의 문화의 세계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에선, 문화의 세계화가 각 나라의 정체성을 해치고 문화의 동질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다른 한편에선, 문화의 세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화가 일방적인 문화의 침식만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시각은 세계화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파악하며 문화의 세계화도 이러한 근대 세계 체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문화제국주의의 큰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문화의 세계화란 미국 문화의 세계화를 의미하고 문화의 세계화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세계체제로 파악하고 있는 월러스타인은 문화도 세계체제의 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월러스타인은 문화는 세계체제이고, 근대 세계체제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한다(Wallerstein, 1990, 1991).

허버트 설러 또한 2000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런 시각을 유지했다. 설러(2001)에 의하면 세계화는 거대 기업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며 이들 초국적 미디어 산업은 대중들의 의식과 정서를 지배한다. 미디어의 세계 지배가 세계화라고 주장하는 그는 이를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리 모하마디(1998)도 이런 시각을 따르고 있다. 그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세계의 가난한 자들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화 상품, 미디어 메시지의 국제적인 자유시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불평등은 새로운 자원을 형성할 뿐이라고 한다.

스튜어트 홀(Hall, 1991: 27)은 명확히 세계 체제로서의 문화의 세계화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문화의 세계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의 세계화는, 홀에 의하면, 옛날의 세계화와 달리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옛 세계화 형태는 영국적(English)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는 미국적(America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는 세계적 대중문화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 대중문화는 문화생산의 근대적 수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이는 좀 더 급속하고 좀 더 용이하게 언어적 국경을 넘고, 다시 넘고, 좀 더 즉각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넘어서서 말하는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세계적 대중문화는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대중 광고의 이미지와 이미지상, 스타일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문화의 세계화를 인정하면서도 문화의 세계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바르니에(Warner, 1999, 2000)는 문화를 전통으로서의 문화와 산업화된 문화를 구분하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산업발전의 결과로서 미국에서나 스리랑카에서도 한결갈게 자신의 생산물을 팔면서 세계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에스키모 문화나 프랑스 도시 노동자들의 문화는 대단히 지역적인 문화이며 세계적으로 보급되고자 하는 야망도, 수단도 없다. 그러나 산업은 전통문화를 속에 침입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니에는 문화의 세계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또는 음험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시장은 전 지구화된 교역의 수단이다. 분명 그것은 물건과 행동방식의 교류를 세계화시킨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은 여러 사회에게 무한히 다양화된 재화를 공급하고, 이 재화는 차이와 동일성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된다.”

세계화를 제국주의와 구분하는 움직임도 있다. 톰린슨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는 제국주의보다는 덜 의도된 과정의 하나라고 파악한다. “세계화는 아마 더 이상 일관성이 없고 문화적 목표를 갖지 않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와는 구분될 것이다. 확실히 제국주의는 경제적·정치적 의미에서는 애매모호하지만 최소한 어떤 권력 중심으로부터 전 세계에 걸쳐 하나의 의도된 사회 체제의 확장이라는 목적은 가지고 있다. ‘세계화론’에 대한 개념은 세계 모든 지역의 상호 관련과 상호 의존을 의미하지만 제국주의보다는 확실히 덜 의도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Tomlinson, 1991, 1994: 301).

3) 문화 시장 개방 정치경제학 논의: 문화제국주의 vs 문화 복합론

문화제국주의는 예전의 제국주의에서처럼 노골화된 무력적 침탈이나 폭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초국적 문화자본이 문화상품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확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탁월하였다. 그리하여 영화나 텔레비전을 포함한 문화상품들이 미국에 의해 다른 나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 국제 교류에 있어 일방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의 거대 자본을 수반한 문화산업에 의해 세계의 문화가 동질화 내지 문화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국제 교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제국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점에서 그 이론적 한계를 드러내며 비판을 초래하였다.

바커(Barker, 1999)는 문화제국주의의 ‘지배·주변’ 모델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 또는 문화 잡종 현상이나 문화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화 수용이 인종, 국가, 성에 따른 문화 수용의 다양하며, 수용자의 수용 과정이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이라는 것 등을 예로 들며 문화제국주의 테제를 광범위하게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문화제국주의 시각보다는 문화의 복합성으로 이해한다.

(1) 중심·주변 국가 테제와 지배적 문화

프랑크와 산토스 등의 종속 이론과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심·주변 국가’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지배 국가에 의한 피지배 국가의 종속 심화 주장은 문화 제국주의에 적용되는 비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월러스타인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통관계로만 봄으로써 주변부 국가의 다양성과 다중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제국주의의 ‘획일화 명제’ 내지 ‘지배적 문화’ 개념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였다. 존 싱클레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중심·주변 모델의 내재적 한계는 문화제국주의 패러다임에서 수많은 결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획일화 명제’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다. ... 지배 이데올로기 명제의 한 종류로서 심한 경우, 대중은 전능한 미디어가 만들어낸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열간으로 인식되는 데, 이는 한때 비판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분석들에서 보였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명제’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싱클레어, 2005: 232~233). 톰립슨(1998: 299~301)도 기든스의 중심·주변부 비판론에 근거하여 세계화를 복합적인 탈 중심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 ‘중심·주변’ 테제는 인류학자인 아파두라이에 의해서도 도전받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문화 경계는 복잡하고, 겹쳐지고, 분열적인 질서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더 이상 기존의 중심·주변 모델로 파악될 수 없다(다중의 중심과 주변으로 설명하는 모델로도). ... 현 세계경제의 복잡성은 우리가 이제까지 거의 이론화하지 못한 경제, 문화, 그리고 정책 사이의 어떤 근본적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Appadurai, 1990: 296).

‘중심·주변’ 모델은 미국 중심의 지배적 문화가 주변 국가의 문화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해친다는 문화제국주의의 핵심적인 명제로, 이 중심·주변 테제가 비판받음으로써, 문화제국주의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대중매체에 의한 미국식 문화가 (그것이 긍정적이던 부정적 이던 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²⁾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현상이 지배적이지도, 일방적이지도 않다는 여러 주장과 근거들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지배적, 일방적 문화에 대한 비판은 수용자의 능동적 수용, (유사) 문화제국주의가 미국에 의해서만이 아닌, 멕시코나 브라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²⁾는 것으로 이어진다.

(2) 문화 동질화 vs 문화 복합

문화제국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다. 한 문화의 다른 문화에 대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나 사회의 정체성을 해치고 문화의 동질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헤머링크는 문화 동조화(synchron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조화 현상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문화의 동질화를 주도하는 주범이다. “한 가지 결론은 여전히 만장일치로 내려지는 것 같다. 세계 문화 체제의 인상적인 다양성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문화적 동조화’의 과정 때문에 소멸되고 있다”(Hamelink, 1983: 3).

그러나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하여 정체성을 파괴 혹은 포섭하고 동질화시킨다는 문화제국주의 명제는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나 사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러 이리한 것이라고 규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설령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곧 그 문화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 한 나라나 사회의 정체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형성과 함께 내적인 변동을 거치며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헤머링크의 다국적 미디어 기업에 의한 문화 동조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엔 앙(Ang, 1990: 255)에 의하면, “비록 초국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국가 정체성의 기존 형태를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지

2)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의 7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3) 뒤의 유사 문화제국주의 현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만, 초국적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결집과 결속의 기회와 해외 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문화는 국가 정체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나라와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제국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타국의 문화가 수용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의 문화 동질화 내지는 문화 동조화 테제는 슐레진저(Schlesinger, 1991), 톰린슨(1998)에 의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3) 수용자의 수용 과정

문화제국주의의 주장과 가설의 맹점 중의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문화가 비 서구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수용자들이 무시되어졌다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나 전통적인 효과이론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 이들 이론에서 수용자들은 일정한 의미를 단순하게 전달받기만 하는, 다시 말하면, 수용자들은 어떠한 메시지에 대하여 대응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즉, 미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미국 중심의 메시지나 그에 담긴 의미, 가치관, 이데올로기 나아가서 문화 전반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는 반드시 송신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피스크와 하트리(Fiske and Hartley, 1978)가 설명하듯이 텔레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그것의 산물인 프로그램도 인간의 선택과 문화적 결정,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의 소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적 의미란 단순한 실제의 반영만이 아닌 그 프로그램에 담긴 문화의 표현양식과 사회질서와의 관계, 수용자의 주관적인 의미 해석, 그들 간의 상호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단순한 해석이 아닌, 프로그램에 담긴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국의 프로그램을 봤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수용자가 단순히 그 프로그램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가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을 감안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수용자들은 미국의 문화를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미국문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소멸시키거나 동질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로 수용자의 능동적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문화주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Ang, 1985; Liebes, 1988, 1984; Katz and Liebes, 1985).

톰린슨(Tomlinson, 1991/1994)도 직접적 수용자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적 미디어가 다른 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할 때 미디어 제국주의라는 좁은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제도와 미디어의 텍스트 같은 것을 포함하는 폭 넓은 과정으로서의 문화제국주의를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즉, 만약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생활에 서구의 미디어가 침투한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 그 영향을 '산 경험으로서의 문화'와 '표상으로서의 문화'의 '변증법'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솔웬(Salwen, 1991)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존하는 문화제국주의 연구를 효과이론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그는 단지 서구 미디어에 대한 노출만이 외국인들에게 문화 정체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주장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는 문화 접촉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외국 미디어 메시지에 능동적 저항을 하고, 때로는 외국 미디어 메시지가 부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했다. 그렇지만 외국 미디어 이미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미디어 노출은 부지불식간에 문화적인 가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외국 미디어 노출에 의한 수용자 변화는 문화제

국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용자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은, 그것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4) 일방적인 교류에 대한 비판: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

문화제국주의의 또 다른 한계로는, 비록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직도 전 세계 시장을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프로그램의 독점 현상이 완화되거나, 일부 국가는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 수출 국가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에서 주장하듯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이 특정 지역에서 유사 문화제국주의 내지 허부 문화제국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인디아, 이집트 등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상당히 의존하였던 국가들은 각 지역에서 강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TV Globo나 멕시코의 Televisa는 자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나 유럽 지역에 미디어 상품들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였다(이상우 외, 2003; 싱클레어, 2005).

허만과 맥체스니는 글로보와 텔레비사는 모두 미국의 자본과 프로그램 공급에 크게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상당 수준의 독자적인 위상을 획득해 갔다고 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물들은 이제 편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자체 개발한 텔레노바(telenova)들은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들은 그 지역에서 '미디어 신제국주의' 내지는 '허부 제국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포맷은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며, 외국으로부터의 편성과 기자재, 광고원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허만·맥체스니, 1998: 306~312). 이들의 허부 제국주의 역할은 정치권과의 결탁 속에서 국내에서 거대 독점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한류 열풍도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은 외국 프로그

램의 편성 비율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 만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 등이 해외로 수출되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도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에서 유사 문화제국주의 내지는 하부 문화제국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들에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자”는 문화 민족주의자의 주장, “제대로 베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신자유주의의 주장, “일단 유통망을 깔아야 예술 작품들도 활로가 생긴다”는 단계적 발전론자의 주장,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연대를 통해 새 공간을 열어 가자”는 탈식민주의자의 시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조한혜정, 2003).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류에는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부 문화제국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시각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배용준을 은사미가 아닌 은근이나 은씨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나, 중국에서 한국의 TV 프로그램 수입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문화 유입이 가져다주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문화 유입과 동질화를 걱정하고 있듯이, 이들 나라들도 한국의 일방적 문화 유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중국 프로그램을 수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유상철 외, 2005).

다른 한편, 한류는 미디어를 통해 사실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문화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민족주의는 한국 대중문화의 우월감을 국가적인 맥락에서 표출하지만, 한류에 대한 애국적인 반응을 통해 식민지적 지배에 대한 문화 콤플렉스의 대항 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동연, 2006).

반한류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화제국주의의 우려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 태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국가는 다른 남미 국가에, 한국에서의 한류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전 세계의 문화가 미국식으로 동질화된

다는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확산 또는 문화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받아들여 수용 국가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수용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한류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전파할 수 있다. 문화제국주의의 주장과 달리,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로 또 다시 재보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문화제국주의의 극복과 비판적 수용

문화제국주의가 앞에서 제기한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급속도로 전개되는 문화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데 문화제국주의만큼 유용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없다. 이는 문화제국주의의 맹점과 한계를 지적한 톰린슨(1998: 281)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는 문화의 세계화를 조명할 수 있는 한 시각으로서 문화제국주의론을 왜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제국주의론의 몇 가지 전제는 홀이나 사이드와 같은 노련한 문화비평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GATT협상과 같은 현실 문화정책에서 여러 국가의 정부가 심각하게 문화제국주의의 위협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문화제국주의론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문화제국주의론은 세계 근대성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가치와 문화의 자율성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와 국제문화다양성협약 비준, WTO 협상 등 국제 협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문화제국주의의 명제와 가설, 그리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수용의 내적·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⁴⁾

기존의 문화제국주의에서는 수용국가의 문화종속에 대한 원인이 자동적으로 외부의 적에게만 돌려졌다. 그들은 문화 동질화나 문화 정체성의 상실을 모두 외부의 적인 제국주의 탓으로 돌렸다. 문화제국주의에서는 생산 관계에서 파생되는 계급 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국내 요인들이 무시되어 수용국가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의 요인들이 없이는 외부의 요인들이 존재할 수 없고, 외부의 요인들이 없이는 내부의 요인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상호 변증법적인 역동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그것이 하나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내부와 외부 대립물의 통합이기 때문이다.

모택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내부와 외부 관계에서 “외인이 변화의 조건이며, 내인은 변화의 근거이므로 외인은 내인을 통해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온도에서 달걀은 병아리로 되지만, 온도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돌맹이가 병아리로 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모택동, 1989: 167~168).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두 가지의 본질, 즉 각기 다른 내부와 외부의 물질 토대에 관한 관찰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물질 토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상호역동적인 관계 — 상호 배타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 를 재정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종속 사회에 있어서의 내부 세력들과 외부 세력들과의 관계이다. 문화제국주의에서는 문화 침입이나 유입의 죄를 외부 세력에게만 묻고 있다.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단 여기서는 한 나라나 사회에 유입되는 문화가 내부 세력들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논의로 하고, 내부 세력들의 책임은 없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에서는 모든 잘못을 외부 세력인 제국주의에게 돌리고 있다.

4) 이 부분은 임동욱, 「문화제국주의론의 비판적 고찰」(1990); 김왕석·임동욱 외, 「한국 언론의 정치경제학」(아침)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한 국가의 내부 세력들이 문화 유입의 모든 책임을 제국주의에게 돌리는 것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제국주의만 나쁜 놈들이라고 비판하고 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제국주의의 단선적이고 환원론적인 접근 방법은 기든스가 정식화한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변증법’, ‘지역적인 몰입과 세계화 경향 사이의 대립적인 상호작용’(툼린슨, 1998: 291~292에서 재인용) 또는 톼린슨(1998: 291~297)의 ‘세계문화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이라는 방식에 의해서도 주장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변증적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나,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수용을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더해 한 나라의 계급 관계, 한 국가의 지역, 인종, 성 등에 따른 변증적인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

2) 내적 다양성: 수용 국가의 계급 관계, 인종, 성 등 역동적 관계 무시

문화제국주의란 한 나라 문화 산업의 자본, 제도, 기술, 문화 상품의 내용이 나 형식,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한 나라나 여러 나라들의 요인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규정을 받고 영향을 받아 그 나라의 문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제국주의가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와 구분되는 이유는 예전의 제국주의는 군사력과 강압을 수반하는 강제력과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문화제국주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 교류에서는, 그것이 자발적이던 암묵적이던 간에, 내부 세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는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과 수용 국가의 국가, 기업, 수용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제국주의는 기존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수용 국가의 성격, 정책, 수용 국가의 미디어 기업들, 문화 산업, 수입 상품의 내용과 성격, 수용자의 수용 과정, 그에 따른 영향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살펴 본 후에 문화제국주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의 또 하나의 맹점은 수용 국가에서의 다양한 여러 계급들과 계층, 인종, 성, 지역에 의한 외국 문화의 소비 양식이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간과하였다. 수용자들을 단일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소비 양식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문화 소비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국가 사이에서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안에서도 계급과 계층, 지역, 성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국가의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들은 현지 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우 수용 국가의 다양한 세력들이 이러한 과정에 밀접히 관계한다. 따라서 문화 수용의 경우, 그 나라와 사회의 특수한 역사 상황, 생산 양식의 변화, 계급 관계, 사회적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세력들은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외국 문화의 수입과 교류에 관여한다. 어떤 때는 수용국가의 지배계급은 중심 국가의 역할을 부수적으로 한 채 문화 수용에 있어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어떤 때는 중심 국가가 수용국가의 여러 세력들과 협력을 하여 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내적 다양성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사항은 외래문화의 수용과 표현 방식이 다양한 계급과 계층, 지역,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래문화에 대한 과다 소비자는 외래문화의 유입 과정에 관련이 깊은 지배계급들이지만, 그 수용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문화 수입의 과정은 단지 생산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유통, 소비 양식의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기존의 문화제국주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내적 수용 과정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종속 국가의 수용자들이 <C.S.I 과학수사대>나 <위기의 주부들>을 시청하는 것은 지배 국가의 가치와 이념, 지배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문화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심도 있는 논의의 대상이지만, 문화제국주의는 그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의 유입과 교류에서는 수용국가의 내적 수용 과정을 포함한 내적 다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나가는 말

문화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전 지구적인 문화의 교류를 한편에서는 문화제국주의로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의 확산 또는 문화의 복합화 현상으로 바라본다. 문화확산론자들에 의하면 문화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문화에 대한 보호나 장벽은 문화적인 폐쇄성을 초래하여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초국적 미디어 기업에 의한 문화 침입이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과 동질성을 해쳐, 그 나라의 문화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문화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초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활동이 이들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보장해 주는 수단 내지는 착취 기구라고 주장한다. 문화 복합 이론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전 지구적 지배를 초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이들의 전 지구적 활동에 의해 초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문화제국주의에서 주장하듯이, 한 국가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화 유입에 의해 문화 복합성과 다양성도 생겨나기 때문에 국제간의 문화 교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 유입 과정이 문화제국주의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문화제국주의에서는 문화 동질화 내지 문화 정체성의 파괴의 원인을, 물론 문화 확산 내지는 문화 복합의 입장에서는 문화 유입이 문화 정체성의 파괴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외부의 적인 제국주의에게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파괴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는 것은

이주 손쉬운 환원론적인 방법이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제국주의에게만 뒤집어씌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유입의 과정, 그리고 유입 과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의 유입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들에 대한 관계들과 내부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제3세계 수용국가들의 문화 유입은 식민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국주의 잔재의 산물과 맞물려 있지만, 현재의 문화 수용이 강압적이지는 않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수용국가들의 미디어 기업들은, 예를 들어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은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중심 국가의 미디어 기업과 경쟁을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 프로그램을 수출하며 주변 국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간의 문화 교류 측면에서 보면 한류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간의 문화 유입은 이러한 수용국가의 특수한 상황, 국가 정책, 문화 상품의 수용 과정과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의 기술이 아닌 어떻게 문화 상품의 유입이 내부(한 나라 문화 산업의 물질적 토대, 문화 산업의 생산 관계, 국가의 역할, 수용자의 소비 양식과 수용 과정, 문화적 영향)와 외부(국제협약 등 국제 질서의 정치경제학적 맥락, 중심 국가의 역할, 초국적 문화 기업들의 초과 이윤 획득 노력 등)의 상호역동성과 변증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문화제국주의이나 아니면 문화 확산이나 또는 문화 복합 현상이나 하는 것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에 대한 분석과 관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Ⅰ 참고문헌

- 구갑우 (2001, 여름). '국제기구'를 다시 읽기 - '제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설정인가?. 『진보평론』, 8호.
- 니중만 (1995). 『세계화와 현대국가』. 서울: 세종출판사.
- 레닌, V. I., 박세영 옮김 (1988). 『제국주의,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 서울:

과학과 사상.

- 모택동, 이희옥 역 (1989). 『모택동 선집 I』. 서울: 전인.
- 모하마디, 알리 (1998). 커뮤니케이션과 개발도상국의 세계화 과정. 알리 모하마디.
김승현·이경숙 공역.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세계화』. 서울: 나남.
- 박길성 (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셀러, 허버트 (2001). 김동춘 (역음). 『정보 불평등』. 서울: 민음사.
- _____ (1999). 지구정보고속도로: 관리할 수 없는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홍성태
역음. 『사이버공간, 사이버 문화』. 문화과학사.
- 싱클레어, 존 (2005). 문화 제국주의를 탈중심화하기: 라틴 세계의 ‘텔레비사’와
‘TV 글로부’, 김창민 외 (편역).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서울: 한울.
- 유상철 외 (2005). 『한류의 비밀』. 서울: 생각의 나무.
- 이동연 (2006). 한류 문화자본의 형성과 문화민족주의. 김수이 편저. 『한류와 21세
기 문화비전: 온사마에서 문화정치까지』. 서울: 청동거울.
- 이상우 외 (2003). 『WTO 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Ⅰ)』.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 임동욱 (1990). 문화제국주의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아침.
- 임현진 (1987). 『현대한국과 종속이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한혜정 (2003). 글로벌 지가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조한혜정 외. 『한류
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케이포, 미첼 (1999). 디지털 고속도로는 정말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제퍼
슨주의 정보정책을 위하여. 홍성태 (역음).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 툼린슨, 존 (1998).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제국주의, 알리 모하마디/ 김승현·이경숙
(공역). 『국제커뮤니케이션과 세계화』. 서울: 나남.
- 허만·맥체스니 (1988). 강대인·전규찬 (공역). 『글로벌 미디어와 자본주의』. 서울:
나남출판.

Ang, I. (1985). *Watching Dallas*. London: Methuen & Co.

_____ (1990). Culture and Communication: Towards an Ethnographic Critique
of Media Consumption in the Transnational Media System.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2~3).

- Appadurai, A. (1990).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Newbury Park and Delhi: Sage.
- Barker, C. (1999). *Television, Globalization and Cultural Identiti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arone, C. A. (1985). *Marxist Thought on Imperialism*. Macmillan.
- Brewer, A. (1980).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London: RKP.
- Dorfman, A. and Mattelart, A. (1975). *How to read Donald Duck: International Ideology in the Disney Comic*. New York: International General.
- Katz, E. and Liebes, T. (1985). Mutual Aid in the Decoding of Dallas: Preliminary Notes from a Cross-Cultural Study. in Drummond, P. and Paterson, R. (eds.). *Television in Transition*. London: BFI Publishing.
- Lerner, D. (1957).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Liebes, T. (1985). Ethnocriticism: Israelis of Moroccan Ethnicity Negotiate the Meaning of 'Dallas'. in *Studies in Visual Communication*, 10(3).
- _____ (1988).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telling of Television Fict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5(4).
- Fejes, F. (1980). The Growth of Multinational Advertising Agenci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0.
- Fiske, J. and Hartley J. (1978). *Reading Television*. London and New York: Methuen.
- Guback T. H. (1974, Winter). Film a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of Communication*.
- Hall, S. (1991).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ization and Tthnicity. A. King (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Houndmills and London: Macmillan.
- Hamelink. C. J. (1983). *Cultural Autonomy in Global Communication*. New York & London: Longman.
- Janus N. (1984). Advertising and the Creation of Global Markets: The Role of the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V. Mosco and J. Wasco(eds.). *The Critical Communication Review*, Vol.2. Norwood: Ablex.
- Mattelart, A. (1979). *Multinational Corporations & The Control of Culture*. Sussex: Harvest

Pres.

- Raghavan, C. (1993). *The New World Order: A View from the South*. Nordenstreng, K. and Schiller, H. (eds.). *Beyond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1990s*. Norwood: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Rogers, E. M. (1969).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Free Press.
- Salwen, M. B. (1991). Cultural Imperialism: A Media Effects Approach.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8(1).
- Schlesinger, P. (1991). Media, the political order and national identity. *Media, Culture and Society*, 13(3).
- Schramm, W. (1964).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Role of Inform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omlison, J. (1991).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강대인 역 (1994). 『문화 제국주의』. 나남.
- Wallerstein, I. (1986). *Historical Capitalism*. 배손근 역 (1986).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 _____ (1990). Culture as the Ideological Battleground of the Modern World-System.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Newbury Park and Delhi: Sage.
- _____ (1991). The National and the Universal: Can There Be Such a Thing as World Culture?. A. King (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Houndmills and London: Macmillan.
- Warnier, Jean-Pierre (1999).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주형일 역 (2000). 『문화의 세계화』. 서울: 한울.
- Wells A. (1972). *Picture-tube Imperialism?, The Impact of U.S. Television on Latin America*. New York: Orbis Books.

(최초 투고 2006.5.29, 최종 원고 제출 2006.7.24)

Political Economy of Global Market
Debate on Cultural Imperialism Thesis
and Its Critical Acceptance of Cultural Imperialism

Dong-Uk Yim

Professor

Division of Mass Communication and Advertising, Gwangju University

Now,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talk is underway in Korea. In FTA talks, the issues on audio-visual sector including screen quota, opening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to the U.S.A. are becoming a hot potato. Globalization has been speed up by mass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Cultures are no longer bounded by specific place but, through the migration of persons and the electronic flows of information, ideas and images, transgress established boundaries. So issues and debates have to be focused on global culture and cultural imperialism. Some would argue global culture is the consequences of capitalist world-system, so dominance by the center should be criticized and vanished. Some would say that global culture would help recipient society's people with cultural diversify and improvement. The issues on culture and communication, particularly at international level call for our attention in light of cultural identity, homogenization and diversity. Although I criticize the cultural imperialism thesis, I suggest critical acceptance of cultural imperialism. That is the observation of complexit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The process of cultural imperialism is not simple and unitary. It rather involves the various forces of internal dynamics along with external forces.

Key word: Cultural imperialism, Global Market, Cultural diversity,
Cultural homogenization